

'이강인 교체 출전' PSG, 랑스 꺾고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

등록 2024.11.03 10:16:49



[파리=AP/뉴스시스] 파리 생제르맹(PSG)의 이강인이 22일(현지시각)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-25 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그(UCL) 리그 페이즈 3차전 PSV 에인트호번(네덜란드)과 경기 중 득점 기회를 놓친 후 아쉬워하고 있다. 이강인은 68분을 뛰었고 팀은 1-1 무승부를 기록했다. 2024.10.23.

[서울=뉴스시스] 하근수 기자 =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(PSG)의 이강인이 후반전 교체로 투입돼 랑스전 승리와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(8승 2무)에 일조했다.

PSG는 3일 오전 1시(한국시각)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랑스와의 2024~2025시즌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1-0으로 이겼다.

이날 승리로 PSG(승점 26)는 2위 AS 모나코(승점 20)와의 격차를 승점 6으로 벌렸다.

유럽 5대 리그 가운데 시즌 개막 후 현재까지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은 PSG, 바이에른 뮌헨(독일), 유벤투스(이탈리아)뿐이다.

PSG는 오는 7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(스페인)와의 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그(UCL) 리그 페이즈 4차전 홈 경기에 집중한다.

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브래들리 바르콜라, 마르코 아센시오, 우스만 데멜레로 공격진을 구성했고, 이강인은 벤치에서 경

기를 시작했다.

PSG가 킥오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실을 봤다.

전반 4분 랑스가 중앙선 부근에서 패스 실수를 범했다. 바르콜라가 위험 지역으로 돌파한 뒤 중앙으로 건넸고 뎀벨레가 침착히 선제골을 터뜨렸다.

랑스는 후반 14분 압두코디르 후사노프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까지 직면했다.

곧히기에 들어간 PSG가 이강인 카드를 꺼냈다.

PSG는 후반 16분 뎀벨레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. 이강인은 올 시즌 엔리케 감독에게 부여받은 '가짜 9번' 역할을 맡고 PSG 공격을 이끌었다.

이강인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. 후반 31분 랑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누누 멘데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건넸다. 하지만 멘데스의 슈팅은 힘없이 막혔다.

올 시즌 아직 도움을 기록하지 못한 이강인이기에 더욱 아쉬운 장면이었다.

이날 이강인은 추가시간 포함 35분가량 뛰며 볼 터치 25회, 슈팅 1회, 기대 도움(xA) 0.27,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다.

축구 통계 매체 '소파스코어'는 이강인에게 평점 7.1로 합격점을 부여했지만, '뜻뭉'은 6.1로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.

이강인은 주중에 있을 아틀레티코전에서 시즌 5호골에 도전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